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남원예촌'이 지난 15일 개관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예약과 숙박체험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관광객 등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남원예촌 한옥숙박시설 개방

오전 11시~오후 3시 개방 · 오후 1시~2시 한옥투어 프로그램 예정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남원예촌'이 지난 15일 개관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예약과 숙박체험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관광객 등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숙박체험객의 미이용 시간대를 활용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민 및 관광객에게 개방하며, 8월1일부터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한옥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시간 외 남원예촌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운영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설의 개방으로 시민들에게는 구도심권 및 남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공감 기회를 확대하며, 관광객에게는 시설의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 체험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시민·방문객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및 상설공연, 프리마켓 등 전통문화와 정서를 다양

하게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남원예촌 2지구(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과 더불어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참고로 '남원예촌'은 광한투원 인근 1만7,400㎡의 부지에 구도심권 활성화 및 관광권역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번 개관한 1지구 전통한옥숙박체험시설과 2지구 전통문화 체험공간이 2017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벼 병해충 합동 예찰 실시

이삭도열병 · 벼멸구 등 예방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벼멸구류 등 비래해충의 발생밀도가 예년보다 높고 지속되는 폭염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벼 병해충 합동 예찰'을 실시했다.

이번 '벼 병해충 합동 예찰'은 28일 수도연구회 회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저해가 되는 벼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해충 발생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 결과 비래해충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멸구 발생밀도가 높았고 종자소독을 소홀히 한 일부 필지에서 벼이(이삭)선충 피해가 관찰

됐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방제가 중요하며 특히 흑명나방은 어린벼때 때 방제를 못할 경우 방제가 어려워지므로 벼 잎을 돌돌 감싸는 피해 잎이 1~2개 보일 때 즉시 방제를 해야 한다.

또한 벼멸구와 이화명나방 방제시에 목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 예방을 위한 적용 살균제도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창군의 특성화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이 되는 깨끗한 들판 조성과 쌀 생산 안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벼 병해충 합동예찰 결과 벼멸구발생포집이 많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벼멸구 발생밀도가 평년보다 11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될 때 우리나라로 비래하므로 반드시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사전에 벼멸구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나래산 등산로 새단장

임실군에 소재한 나래산, 화문산, 도리봉의 등산로 정비가 완료돼 등산인구의 발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암면 나래산 6.3km, 덕치면 화문산 5.5km, 오수면 도리봉 2.2km 구간 및 총 14km에 달하는 등산로에 안내판, 이정표, 목계단, 로프간간, 쉼터의자,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운암면 옥정호와 봉어섬 일대 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나래산을 중심으로 5개 노선 6.3km 등산로를 정비 및 신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옥정호 드라이브코스'에 이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식 운암면 산악회장은 "나래산은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산악회원 및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 '호응'

경운기 · 트랙터 · 관리기 등

순창군이 28일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창경찰서와 합동으로 농기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해 농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강당과 임대사업소에서 농민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육은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 농민들이 주요 사용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실제사례와 이를 막기 위한 예방법 등을 농업기술센터 전문교관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순창 경찰서에서는 농기계 안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농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 우후에는 농기계 안전에 대한 농

민들의 토론시간도 진행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농기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됐다는 평이다.

실제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인제면의 한 농가는 "이번 농기계 안전교육은 농기계사용의 정확한 이해와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도로주행 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이 자칫 농기계사용 안전의식이 소홀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교육이 농민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워 농기계 사고 없는 순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재개

내달 5일부터... 비싼 요금 · 환승 · 운행거리 등에 따른 불편해소

지난 2월 1일 중단됐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오는 8월 5일부터 재개된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주)대한관광리무진은 해당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허가한 것은 부담스러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공익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또한 이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임실~전주~인천 국제공항 간 노선이 재개됨에 따라 임실군민은 비싼 요금과 환승, 운행거리 등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지



임실군은 지난 2월 1일 중단됐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오는 8월 5일부터 재개된다.

역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판결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어 교통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선은 하루 6회 운행되며, 임

실 출발 시간은 02:20, 03:20, 05:20, 07:20, 10:20, 12:40이고, 이용요금은 일반 2만1,700원 청소년 2만3,700원 어린이 1만4,900원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의농업체험관 외관 공사 완료 치유관광 '기대'

테마별 이용객 편의 도모 계획

농업에 치유를 덧입혀 관광과 연결하는 순창군 의농업체험관 외관건물이 최근 완료되면서 순창군이 추진하는 치유관광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인계면 인덕로 427-127번지에 지상 1층 640.80㎡ 규모의 의농업체험관 외관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농업체험관은 인체에 치유효과가 있는 다양한 약용 작물 등을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순창군이 당초 등 단상질할 치유를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물 완공에 따라 군은 내부 치유작

물 식재 및 체험시설 설치에 들어갔다. 군은 테마별 약용식물구역, 관상수구역, 전시 및 체험시설 구역으로 나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전시는 테마별 약용식물 구역이다. 이곳에는 ▲당노 및 해독 위장 ▲고혈압 ▲지상강장 ▲간 보호 ▲항암 ▲기관지 천식 ▲수생식물 등 7가지 테마의 약용작물이 식재될 계획이다.

당노 및 해독 위장에는 담쟁이타래, 여주터널, 자초 생강, 삼주 등의 식물이 고혈압에는 하수오, 누리장나무, 쪄라대, 오가피, 당귀 등이 자랑강장에는 가시오가피, 산마늘, 비수리, 오갈피나무, 복분자 등이 식재된다.

기관지 천식테마에는 산파, 비파나무, 더덕, 도라지 등이 식재된다. 항암을 테마로 해서 부처손, 머루, 대래, 짚신나물, 민병초 등이 식재된다.

군은 이들 약용작물의 식재는 물론 휴식공간, 체험공간 등의 공간시설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의농업체험관이 들어선 지역에는 건강장수연구소, 힐링산책로 등이 위치해 있고 내년부터는 생활 체험관도 운영되고 산야초 활용경관지구 조성 등도 추진되고 있어 의농업체험관이 본격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 북분자주 중국 유명백화점 납품 예정

고창북분자주가 중국대륙을 매료시키고 있다.

고창서해안북분자주(대표 송만희)는 28일 중국 천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성티엔디 수입업체에 북분자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했다.

수출규모는 5000만원 상당의 북분자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천진시 유명백화점과 마트에 납품될 예정이다.

고창서해안북분자주의 대표 제품인 '선운'은 최상급 고창산 북분자에 원적외선과 바이오 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핑에서 발효시켜 빚어낸 술로 2003년 대통령상 수상, 2005년 APEC 공식 민천주 등으로 사용되어 명성을 떨치

고 있다.

고창서해안북분자주 송만희 대표이사는 "이번 중국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북분자주의 위상이 중국에서도 최고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명품 제품을 앞세워 중국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한-중국 FTA 체결 등에 따라 우리 농산물 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 기쁘다"며 "중국 고급시장을 중심으로 고창 농특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어르신 폭염대비 방문

임실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어르신 질병예방 및 건강악화 예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군 의료원은, 폭염발생 시기인 7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폭염대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4,009명(특격노인 1,445명), 거동불편자 116명, 만성질환자 1,983명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의료원 방문서비스인력 6명,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8개소 등의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방문서비스

인력을 투입, 직접 가구를 찾아 안부 확인 및 혈압측정 등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을 통해 열염질환 예방관리 및 여름철 개인위생수칙을 안내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응급콜(119)센터 홍보를 비롯해 '건강관리 수칙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1:1 맞춤 교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부전화, 방문건강관리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무더위 쉼터,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호국원 6·25전쟁 정전협정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신준태)은 지난 27일 호국원 현충탑에서 육군 35사단, 6단야장, 임실대대(2대대), 6·25참전국가유공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참전국기 입장식을 시작으로 국민예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가 종료된 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작은 별 영화관으로 이동하여 한국전쟁의 소재를 다룬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국군장병과 참전유공자가 함께 시청하였다.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과 UN참전국과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동맹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전후세대에 대해 동맹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UN군 참전의 날'로 제정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